

수 능 특 강 목 차

1. 박두진, 「해」
2.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
3. 심훈, 「그날이 오면」
4. 조지훈, 「산상의 노래」
5. 이육사, 「황혼」
6. 최두석, 「성에꽃」
7. 정지용, 「불사조」
8. 문병란, 「꽃씨」
9. 장만영, 「달·포도·잎사귀」
10. 최하림, 「아침 시」
11.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
12. 이정록, 「희망의 거처」
13. 신석정, 「역사」
14. 송수권, 「지리산 뺨꼭새」
15.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16. 신경림, 「나무」
17. 윤동주, 「병원」
18. 김기택, 「벽」
19. 김현승, 「눈물」
20. 김춘수, 「강우」
21. 김수영, 「파발 가에서」
22. 김용택, 「들국」
23. 문정희, 「흙」
24. 복효근, 「느티나무로부터」
25.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26. 최승호,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27. 박목월, 「경사」
28.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29.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30. 장석남, 「수목 정원 9-번짐」
31. 이문재,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32.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33. 문태준, 「가재미」
34. 오장환, 「여수」
35. 이수익, 「방울소리」

수 능 완 성 목 차

미 출 시

학 습 방 법 안 내

목표 : 시험장에서 작품의 제목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작품의 내용과 주제 및 정서/태도가 기억난다.

Step1. 작품 독해

현대시는 연계 한 작품과 더불어 비연계 한 작품이 같이 출제된다. 따라서, 스스로 현대시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연계작품을 학습하며 비연계 독해 연습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작품을 비연계라고 가정하고 스스로 독해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해당 작품을 먼저 읽어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주제 방향성을 하단에 적어본다. 굳이 '주제'가 아닌 '주제 방향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명확한 주제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주제가 아니더라도, '대략 이런 느낌의 시이다'(대상에 대한 긍정, 그리움, 슬픔, 관조 등)라고 간단하게 작성하면 된다.

Step2. 연계 포인트 정리

최근 문학 연계가 작품뿐만 아니라 문제까지 연계되고 있음에 따라, 수능특강에서 출제된 문제와 선지의 핵심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에 [EBS의 시선]에 정리된 내용을 읽어보며 해당 작품에 대해 이해한 뒤, 정리된 출제 포인트를 읽어보며 '올해 EBS에서는 해당 작품에서 이런 부분을 문제로 출제했구나' 납득하면 충분하다. 해당 내용들을 암기할 필요는 없으나, 한 번에 바로 이해가 안 가는 출제포인트는 체크해두고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좋다.

더불어, 앞서 현대시를 스스로 독해하고 적어두었던 주제 방향성과 EBS가 제시한 해당 작품의 주제가 '방향성'이 일치하는지 정도만 확인한다. 이후에는 시험장에서 작품의 주제 및 정서/태도가 기억날 수 있도록 여러 번 읽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Step3. 작품 분석(선택)

이후 시간이 남는다면, 강의나 분석서를 활용하여 해당 작품의 상세한 해설을 학습하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해」 _ 박두진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갭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앓던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니가 오면 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힐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침범을 따라 침범을 따라 침범을 만나면 침범과 놀고, ……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앓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박두진, 「해」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광복 직후의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이상적 삶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시이다.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어둠이 지배하는 부정적인 세계는 가고 밝음이 지배하는 평화와 공존의 세계가 도래하기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시어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해'와 '달밤'에 대한 태도를 부각하는 한편, 음성 상징어나 활유적 표현 등을 통해 '해'가 도래한 희망적 공간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그려 내고 있다.

- 1연: '해'의 도래에 대한 염원
- 2연: '달밤'에 대한 거부
- 3연: '해'가 도래한 상황에 대한 가정
- 4, 5연: 평화와 공존이 구현된 모습
- 6연: 이상적 삶에 대한 소망

✓ 주제 : 평화와 공존의 세계에 대한 소망

- ①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갭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등에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정서의 고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6연에서 '꽃', '새', '짐승' 등 해가 도래한 청산에 모여 앉은 대상을 나열하고 있다.
- ③ '이글이글', '훨훨힐' 등에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
- ④ '훨훨힐 깃을 치는 청산'에서 활유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이 주는 역동적인 인상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니가 오면 ~ 청산이 좋아라', '너를 만나면 ~ 앓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등에서 가정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⑥ 1연의 '솟아라'에서 '-아라'는 기다림의 대상인 '해'에게 모습을 드러내라는 명령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 ⑦ 2연의 '싫어'에서 '-어'는 '달밤'에 대한 거부를 단순하게 서술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⑧ 3연의 '좋아라'에서 '-아라'는 해가 도래한 청산에서 느낄 기쁨과 그에 대한 감탄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 ⑨ 6연의 '-리라'는 화자가 소망하는 바, 즉 해가 도래한 청산에서 '앓되고 고운 날을 누'리는 상황을 이루겠다는 다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 ⑩ 이 작품에는 '해'가 지닌 밝음의 이미지와 '달밤'이 지닌 어둠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을 이룬다. 또한 밝음이 지배하는 공간인 '청산'은 '눈물 같은 골짜기', '아무도 없는 뜰'과 대비되어 평화와 공존이 구현된 상징적 장소로 형상화되고 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_ 한용운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民籍)*이 없습니다.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化)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 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

*민적: 예전에, '호적'을 달리 이르던 말.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시는 '당신'이 가고 홀로 남아 절망적인 상황을 겪던 화자가 온갖 사회적 규범이 권력과 금력을 위해 봉사하는 덧없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에 '당신'을 보게 되면서 다시 극복의 의지를 품게 됨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가 현실에서 겪는 굴욕과 모멸은 2연과 3연에서 구체적인 상황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통의 극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화자는 '당신'을 보고 힘을 얻게 된다. 이는 임이 부재하는 상황이 임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절망의 상태에 놓였던 화자가 희망과 의지를 품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1연: 당신을 잊지 못하는 이유
- 2연: 이웃집 주인의 모멸 속에서 당신을 봄.
- 3연: 장군의 능욕에 항거하면서 당신을 보고, 방황 속에서 당신을 봄.

✓ 주제 : 굴욕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와 신념

- ① '당신을 보았습니다'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시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경어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이 되는 '당신'에게 경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한용운의 시는 승려이자 독립운동가로서 그의 삶의 궤적과 연관하여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제 강점의 현실과 독립운동가로서 그의 삶을 연관 지어 보면, 그의 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임', '당신'은 조국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적 상황은 그 조국을 잃어버린 일제 강점의 현실로 볼 수 있다. 이 작품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시를 통해 조국과 국권 상실의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④ '당신'을 조국으로 보면, '당신을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나를 위함이 많'다고 하는 것에서 시인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의 필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땅이 없으므로', '집도 없고', '민적이 없습니다'에서 국권 상실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 ⑥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는 모두 '당신'이 가신 후에 퍽박을 받은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해당 구절에서 조국을 잃은 국민으로서 시인의 설움을 짐작할 수 있다.
- ⑦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은 국권을 상실한 이후의 상황이나 국권이 상실된 상황 자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⑧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 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에서 시인이 국권 상실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좌절,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방황과 갈등을 짐작할 수 있다.
- ⑨ 문학 작품에는 창작된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담겨 있기 마련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를 감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시가 창작되던 시기에는 약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빈약했다는 점이다. 시를 보면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과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모욕하고 능욕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각기 인격과 인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_ 심훈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족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복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 심훈, 「그날이 오면」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민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이다. 각 연은 8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광복이 도래한 후 느끼게 될 화자의 기쁨을 민족적 환희와 더불어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기쁜 소식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나, 드는 칼로 자신의 가족을 벗겨 복을 만들어 둘러메고 행렬의 앞장을 서겠다는 것, 우렁찬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표현 등은 광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1연: 광복의 ‘그날’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
- 2연: 광복이 찾아온 ‘그날’의 감격

✓ 주제 :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

- ① ‘종로’와 같은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여 상황에 대한 현실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2연의 ‘넓은 길’은 화자가 바라는 ‘그날’이 도래한 후, 화자가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 복을 치고자 하는 장소이므로, 화자가 여러 사람과 더불어 기쁨과 같은 감정을 발산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광복의 상황을 가정한 후, 적극적인 행동 수행과 극단적인 자기희생의 의지를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활용하여 격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⑥ ‘오면’과 ‘오면은’의 변주가 ‘와 주기만 한다면’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것은 ‘그날’이 도래한 것과 같은, 가정의 상황이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⑦ ‘기뻐서 죽사오매’ 한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나 ‘거꾸러져도 눈을 감’는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광복을 염원하는 화자의 내면을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과 결부하여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⑧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는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광복의 기쁨을 표현하겠다는 것으로, 과격한 행동 표현으로 나타나는 격정적 어조를 통해 극단적인 자기희생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⑨ 자신의 가족을 벗겨 ‘복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선다는 것은 행동 수행의 적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상의 노래」 _ 조지훈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높으디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굵이굵이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매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의 노래」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1945년에 발표된 것으로 당시 광복의 감격을 직설적으로 표출한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비유적인 표현과 비교적 절제된 어조를 통해 광복을 맞이한 데 대한 감격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역사적 상황이 새롭게 전개되는 시기에 민족의 앞날을 염려하며 올바른 길을 모색하고자 했던 시인의 지사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1연: 광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
- 2, 3연: 광복을 맞이한 감격과 기쁨
- 4, 5연: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
- 6연: 광복을 맞이한 조국의 바람직한 모습
- 7연: 조국의 미래에 대한 모색과 기대감

✓ 주제 : 광복을 맞이한 현실에 대한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

- ①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샛별아 숨으라’에서 명령형의 어미를 통해 청자인 ‘샛별’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등에 청각적 이미지가, ‘향기로운 싸릿순’에 후각적 이미지가 나타나며 이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1연의 ‘산마루’는 ‘긴 밤’과 같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화자가 ‘홀로’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울어’ 온 장소이므로 혼자서 부정적 현실을 감내해 온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⑤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 광복을 맞이한 기쁨과 광복 이후의 더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지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⑥ ‘시들은 핏줄’과 ‘환히 트이는 이마’의 대비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와 이후 찾아온 광복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⑦ 긍정적인 상황에 있음을 의미하는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홀로’ ‘무엇을 기다리’는 모습은 광복 이후의 더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지사적 태도를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황혼」 _ 이육사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黃昏)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같이도
 인간(人間)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다오

저- 십이성좌(十二星座)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鐘)소리 저문 삼림(森林) 속 그윽한 수녀(修女)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가지없는 그들의 심장(心臟)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고비 사막(沙漠)을 걸어가는 낙타(駱駝) 탄 행상대(行商隊)에게나
 아프리카 녹음(綠陰) 속 활 쏘는 토인(土人)들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地球)의 반(半)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 다오

내 오월(五月)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황혼아 내일(來日)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나

- 이육사, 「황혼」

*수인: 옥에 갇힌 사람.
 *암암히: 기억에 남은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하게. 또는 깊숙하고 고요하게.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화자가 '골방'에서 맞아들인 '황혼'을 의인화하여, 자신의 관심이 외부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황혼의 품에 안긴 소외된 존재들에게 애정을 베풀려는 의지를 드러낸 시이다. 비유와 열거,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등을 통해 연민의 대상이 되는 존재에 대한 화자의 포용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1연: 인간의 고독에 대한 인식
- 2연: 소외된 이들에게 애정을 베풀겠다는 의지
- 3, 4연: 소외된 이들의 구체적인 모습
- 5연: 사라지는 황혼을 보며 느끼는 아쉬움과 내일에 대한 기대감

✓ 주제 :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 느끼는 연민과 애정

- ① '흰 갈매기들', '녹음', '푸른 커-튼' 등에서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는 색채어를 찾아볼 수 있다.
- ② 2~4연은 의인화된 청자인 '황혼'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띠고 있다.
- ③ '종소리 저문 삼림 속', '암암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등은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청자인 '황혼'에게 특정한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문이 사용되어 있다.
- ⑤ '~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등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는 의문형 종결 표현이 사용되어 있다.
- ⑥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로, 화자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제약이 가해진 처지에 있기에 '의지가지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 헤아려 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⑦ 화자가 하는 상상은 여러 곳에서 특정한 시간을 공유하는 존재들을 떠올리는 공간적 확장을 통해 전개된다.
- ⑧ 화자가 '커-튼을 걷'는 것은 중심 소재인 '황혼'을 자신이 있는 골방 안으로 맞아들여 가까이에서 접하는 경험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⑨ 화자는 중심 소재인 '황혼'이 '부드러운' 속성을 지닌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 ⑩ '활 쏘는 토인들'은 '십이성좌의 반짝이는 별들',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들',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와 함께 '의지가지없는' 존재이기에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⑪ '입술을 보내'는 것은 소외된 존재들의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화자가 취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 ⑫ 화자의 상상은 '골방'에서 '지구의 반쪽'으로의 공간적 확장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성애꽃」 _ 최두석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애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엔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애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애꽃」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차창에 피어 있는 ‘성애꽃’을 보며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이 시에서 공간적 배경이 되는 ‘새벽 시내버스’는 ‘엄동 혹한’으로 암시되는 힘겨운 시대 상황을 견디며 살아가는 서민들이 타고 있었던 곳이다. 화자는 그들이 남긴 흔적인 ‘성애꽃’을 보며, 고통스럽지만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느낀다. 시의 마지막에는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나타나는데, 이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이 용인되지 않는 암울한 시대상이 암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10행: 성애꽃을 보고 서민들의 숨결을 떠올리며 아름다움을 느낌.
- 11~19행: 성애꽃의 모습을 감상하면서 감동함.
- 20~22행: 뜻을 같이했지만 지금은 갈혀 있는 친구를 떠올림.

✓ 주제 :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

- ① ‘덜컹거리는 창’ 등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나타나 있다.
- ② ‘~ 막막한 한숨이던가’, ‘~ 정열의 숨결이던가’ 등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는 의문형 종결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③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는 화자가 ‘처녀 총각 아이 어른 /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등이 토해냈을 ‘막막한 한숨’, ‘정열의 숨결’에 대한 연상 끝에 떠올린 대상임을 고려할 때, 소외된 이들을 위해 노력하다가 억압적인 사회 현실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가 되어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사람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④ 화자가 하는 상상은 동일한 공간을 다른 때에 점유하던 존재들을 떠올리는 시간적 변환을 통해 전개된다.
- ⑤ 화자가 ‘자리를 옮겨다니’는 것은 중심 소재인 ‘성애꽃’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경험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⑥ 화자는 중심 소재인 ‘성애꽃’이 ‘찬란한’ 속성을 지닌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 ⑦ ‘실업자’는 ‘처녀 총각 아이 어른 /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와 나란히 제시되어, ‘막막한 한숨’, ‘정열의 숨결’을 토해 냈을 민중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화자가 연민의 정서를 느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⑧ 화자는 현재 ‘새벽’에 시내버스를 타고 있지만, 그의 상상은 그 시내버스를 ‘간밤’에 탔었을 여러 존재에게 미치고 있다. 이는 동일한 공간인 시내버스 안을 다른 때에 점유하던 존재들을 떠올리는 시간적 변환을 통해 상상이 전개되는 것이다.

「불사조」 _ 정지용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비에!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도다.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너를 돌려보낼 아모 이웃도 찾지 못하였노라.
 은밀히 이르노니- '행복'이 너를 아조 싫어하더라.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던뇨?
 비애! 오오 나의 신부!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달았노라.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그러나 너를 묻은 아모 석문(石門)도 보지 못하였노라.

스사로 불탄 자리에서 나래를 펴는
 오오 비애!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여!
 - 정지용, 「불사조」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인간에게 '비에'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탐구한 시이다. 화자는 인간의 근원적 감정인 비애를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신부'에 빗대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또 비애를 '불사조'에 빗대어 소멸과 부활을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인 비애를 지니며 사는 것을 숙명으로 여긴다. 한편 이 작품은 작가의 종교관이 반영된 작품으로도 해석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비애를 지니고 살아가므로, 초월적 존재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 1연: 나의 내면에 자리 잡은 비애
- 2연: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비애
- 3연: 행복이 싫어하는 비애
- 4연: 나의 마음에 깃든 비애
- 5연: 나의 청춘과 함께 죽은 비애
- 6연: 부활하는 비애

✓ 주제 : 인간의 근원적 정서인 비애

- ① 의문형 표현과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가 쓰였다.
- ② '오오 나의 신부!', '오오 비애!'에서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에'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③ 추상적 대상인 '비에'를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처럼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존재로 표현하여 비애가 지닌 속성을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④ '박힌 화살'과 '날지 않는 새'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시어로, 이는 비애가 화자에게 늘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 ⑥ 화자는 '비에'를 인간의 근원적 감정으로 인식하며, 인간은 굴레와 같은 '비에'를 지니며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비에'가 소멸과 부활을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 ⑦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고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비에'라는 감정이 인간의 근원적 감정임을 인식한 것이다.
- ⑧ '나의 신부'인 '비에'가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죽었다는 것은 '비에'를 젊은 시절에 늘 자신과 함께하는 숙명적인 존재라고 여긴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 ⑨ '비에'를 '불탄 자리에서 나래를 펴는' '불사조'라고 한 것은 존재의 소멸이 새로운 생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꽃씨」 _ 문병란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가을날
빈손에 받아 든 작은 꽃씨 한 알!

그 술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비애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 가는 가을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기인 기다림의 창변(窓邊)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 문병란, 「꽃씨」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가을날 잎과 꽃이 사라진 뒤에 만들어진 ‘작은 꽃씨’를 보며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려하게 빛나는 여름을 보내고 맞이한 가을은 외롭고 쓸쓸함을 주지만 무언가 여물어 가는 계절이다. 화자는 소멸의 계절인 가을에 외로움마저 여물어 가는 것을 성찰하며 인간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는 비움의 과정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이처럼 가을을 쇠락이 아닌 완전한 성숙을 지향하는 계절로 바라보는 인식을 드러낸다.

- 1연: 꽃씨의 존재 인식
- 2연: 꽃씨에 담겨 있는 가을
- 3연: 꽃씨의 생성 과정
- 4연: 가을날 성숙해지는 화자
- 5연: 완전한 성숙을 지향하는 마음

✓ 주제 : 완전한 성숙에 대한 염원

- ① 의문형 표현과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가 쓰였다.
- ② 여름과 가을로 이어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 ③ ‘꽃들’을 마치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표현하는 등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 ④ ‘꽃씨 한 알!’, ‘빛나는 외로움!’에서 영탄법을 활용하여 가을날 꽃씨를 보며 깨달음을 얻은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추상적 대상인 ‘여름’을 ‘빛나는’ 존재로 표현하여, 여름의 속성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⑥ ‘꽃들의 몸부림’, ‘입김이 여물어’는 동적 이미지로, 꽃씨가 생성되는 상황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⑦ 화자는 잎과 꽃이 사라진 뒤에야 생성되는 ‘꽃씨’를 보며 인간이 내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깨닫고 있다. 소멸과 비움, 그리고 그리움의 과정을 거쳐야 마침내 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연 현상을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 ⑧ ‘그 술한 잎이며 꽃이며 /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에 ‘작은 꽃씨’가 된다는 것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소멸이 있어야 함을 자연 현상을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 ⑨ ‘꽃씨’는 앞으로 자라서 새로운 결실을 가져올 존재로, ‘기인 기다림의 창변’에 ‘꽃씨’를 묻었다는 것은 결실, 즉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달·포도·잎사귀」 _ 장만영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순이 버레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 왔구나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동해 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곱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순이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사귀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 장만영, 「달·포도·잎사귀」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전원적인 소재를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회화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으로, 가을밤 달빛이 비치는 뜰의 정취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1연과 5연의 ‘순이’는 옛날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소박하고 정감 어린 이름의 여인으로, 화자가 호명하는 대상이면서 달빛이 비치는 밤을 배경으로 감상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1연: 달빛이 비치는 고풍스러운 뜰
- 2연: 달의 모습과 향기
- 3연: 깊고 푸른 가을밤
- 4연: 달빛 아래 곱게 익어 가는 포도
- 5연: 달빛 아래 호젓한 잎새

✓ 주제 : 가을밤의 정취와 서정

- ① 1연과 5연에서 ‘순이’라는 인물을 호명하는 방식을 통해 시상의 시작과 마무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달’을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는 무정물인 ‘달’이라는 소재를 유정물처럼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뜰을 비추고 있는 달의 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1연과 5연에서 ‘순이 ~에’, ‘~이 ~구나’와 같은 어구를 반복하여 구조적 완결성이라는 수미상관의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이 아닌,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관찰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
- ⑤ ‘순이’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으로,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르며 존재를 떠올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자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토속적인 이름이 순박한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 ⑥ 트랙의 포도가 달빛아래 익어 가는 풍경을 다채로운 이미지와 비유를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⑦ ‘버레 우는’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밀물처럼 밀려 왔구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트랙의 분위기를 나타낸 것이다.
- ⑧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는 시각의 후각화를 통해, ‘동해 바다 물처럼 / 푸른 / 가을 / 밤’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가을밤에 대한 느낌을 다채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아침 시」 _ 최하림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른다
 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네거리 지나고 시장통과
 철길을 건너 천관산 입구에 이르면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떠올라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싸인다

 그때쯤이면 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 불이 붉은 막내까지도 킁킁
 기침을 하며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빛을
 하는 잡목 숲 옆구리를 빠져나가
 공중으로 오른다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은 용케도 피해 간다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
 그곳에서는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
 수가 있다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꿩지 붉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포르릉 포르릉 날며 흘러
 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느낄 수 있다
 - 최하림, 「아침 시」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아침 시간대에 깨어나는 굴참나무와 아이들의 모습을 주로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구체화함으로써 대상들이 지니고 있는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시인이 병고에 시달릴 때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굴참나무와 아이들의 모습은 부러움의 대상이며, 시인은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싶은 바람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연: 굴참나무의 활력 넘치는 모습
- 2연: 굴참나무와 마찬가지로 생기가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

✓ 주제 : 굴참나무와 아이들로부터 느낄 수 있는 생의 활력

- ① 무정물인 소재 ‘굴참나무’를 유정물과 같이 표현하여 대상이 지닌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관찰 대상이 ‘굴참나무’에서 ‘아이들’로 달라지고 있다.
- ③ ‘불이 붉은 막내’는 ‘아이들’ 가운데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으로, ‘불이 붉은’의 시각적 이미지와 ‘막내’가 환기하는 어린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랑스러운 느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④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과 자연물을 활동적이고 상승적인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대상 간의 유사성 내지는 일체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상상의 세계를 그려냄으로써 활력 넘치는 삶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는 상상의 세계를 나타낸 것으로, 활력 넘치는 삶에 대한 열망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⑥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 오른다’는 굴참나무와 아이들의 움직임을 상승적 이미지로 구체화한 것이다.
- ⑦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 꿩지 붉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 / 저 가지로’ 난다고 표현한 것은 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아이들과 자연물인 ‘종다리’, ‘비둘기’ 등과의 유사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생명의 서·일장」 _ 유치환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 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

*영겁: 영원한 세월.
 *사구: 모래 언덕.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생명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드러낸 시로, 화자는 모든 것이 죽어 가는 극한의 공간으로 자신을 이끌어 가 그곳에서 치열하게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한다. 만약 참되고 순수한 생명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한 화자의 이와 같은 강인한 의지와 태도를 다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 1연: 생명과 삶에 대한 회의
- 2연: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극한적 공간인 사막
- 3연: 생명의 본질을 찾으려는 비장한 의지

✓ 주제 : 생명과 삶의 본질을 갈구하는 강한 의지

- ① 화자를 가리키는 표현인 인칭 대명사 '나'를 빈번하게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호올로 서면'에서 가정적 진술이 나타나며, 이를 바탕으로 본질적 자아와의 만남을 의미하는 '나와 대면케' 되는 것과 같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2연의 '거기'는 '아라비아의 사막'을 가리키는 것으로, 태양을 의미하는 '백일'이 떠오르고, 모든 것이 모래 속에서 죽어 간 극한의 공간이다. 화자는 이러한 극한의 공간을 스스로 찾아가 고독과 고통을 느끼려 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고자 한다. 따라서 '거기'는 화자로 하여금 자기 단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극한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는 화자로 하여금 '나는 가자'에 나타나는 결심을 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일체의 모래 속에서 사멸한'이라는 표현은 화자가 향하는 공간이 모든 존재가 '사멸'하는 고통과 죽음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⑥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에서의 '열렬한 고독'이란 '알라의 신만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공간인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나'가 떠올리게 되는 '고독'을 의미한다. 이를 '열렬한', 즉 어떤 것에 대한 애정이나 태도가 매우 맹렬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떠올리는 '고독'의 정도가 매우 강렬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⑦ 삶에 대한 회의와 변민으로부터 벗어나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한 화자의 의지와 노력을 나타냄으로써 자아 탐구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⑧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삶의 애증을 다 짐 지지 못하'는 상황은 삶에 대한 회의와 변민으로 화자가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⑨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겠다는 화자의 결심은 본질적 자아와의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⑩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화자 자신을 이끌어 가는 것은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⑪ '호올로 서면 /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된다는 것은 화자가 바라는 바인 본질적 자아를 찾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 ⑫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려 애쓰는 과정은 자아에 대한 탐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희망의 거처」 _ 이정록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옥수숫대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허방으로 내딛는 저 곁뿌리처럼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목울대까지 울컥울컥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옥수수밭 두둑의
 저 버드나무는, 또한
 제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제 흠집에 박는다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

- 이정록, 「희망의 거처」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옥수수와 버드나무라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삶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상처로 인한 고통을 견뎌 내고 그 상처를 삶의 새로운 방편으로 삼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생’에 대한 깊은 인식을 끌어내고 있다.

- 1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옥수숫대
- 2연: 옥수숫대 뿌리의 강인한 생명력
- 3연: 상처를 견디고 극복하는 버드나무
- 4연: 버드나무와 옥수숫대를 통해 깨닫는 생의 의미

✓ 주제 : 시련을 이겨 낸 삶에 대한 예찬

- ① ‘울컥울컥’과 같은 음성 상징어가 쓰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가 주시하는 대상인 ‘옥수숫대’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옥수수밭 두둑’은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자신의 흠집에 박는 버드나무를 보게 되는 공간이다. 버드나무는 상처와 시련을 통해 이르게 되는 자아성숙의 과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으며, 화자는 이러한 자연물을 통해 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따라서 이 공간은 화자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는 대상을 발견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에서 ‘땅에 닿지 못할’지라도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모습은 화자가 ‘옥수숫대’에서 발견한 긍정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화자는 ‘~는 것이다’와 같은 선언적 진술을 활용하여 ‘옥수숫대’의 특성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추’는 것은 서로의 상황에 대한 공감과 ‘생이란, /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 꺼내는 것이라고’에 대한 동감 내지는 동병상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삶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실패로 인한 상처의 의미 있는 수용, 시련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자아의 성장 등을 강조하고 있다.
- ⑥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실패로 인한 상처를 유의미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자아의 성숙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⑦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는 것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쉽게 꺾이지 않는 생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⑧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역사」 _ 신석정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1

저 허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아렘פות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출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2

바윗돌처럼 공공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를 자작나무 허을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온통 괴여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교욱 질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신석정, 「역사」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생명력과 저력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허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 꽃을 보며 달래꽃을 피우기 위해 햇볕, 바람, 벌나비 등의 존재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며 민중의 연대 의식을 느낀다. 그리고 바윗돌처럼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달래꽃을 보며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과 저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민중이 연대와 화합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 우뚝 설 수 있음을 언급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1연: 허잘것 없지만 멀하지 않는 달래꽃
- 2연: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피어나는 달래꽃
- 3연: 연대와 화합으로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가는 달래꽃

✓ 주제 : 연대와 화합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

- ① ‘저 허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와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등의 시구에서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음성상징어 ‘훌훌’을 통해 달래꽃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를 자작나무 허을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우리 민족을 움아매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뜻을 표출하고 있다.
- ④ ‘푸른’이라는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소박한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모습을 떠올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는 존재로서의 민중을 예찬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 ⑥ 달래꽃을 민중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때, ‘허잘것없는’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민중의 모습을,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영속적 존재로서의 민중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⑦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은 ‘바윗돌처럼 공공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게 하는 힘으로 지배층의 억압을 이겨 내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⑧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은 연대하고 화합하는 민중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리산 삿갓새」 _ 송수권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삿갓기가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 뜬*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삿갓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下)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삿갓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삿갓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中)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下)에서 울던 한 마리 삿갓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삿갓새」

*길 뜬: 길이 덜 뜬.
 *세석: 조그마한 돌.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지리산 삿갓새 울음소리에서 느껴지는 설움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지리산의 한 곳에서 삿갓새가 울음을 토해 내면 그 울음이 봉우리를 울리고 넘어와 섬진강으로 이어지고, 그 섬진강은 다시 남해 군도의 여러 섬을 밀어 올리며, 그 울음이 지리산 세석의 철쭉꽃밭으로도 남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산에서 강, 바다로 이어지는 거대한 산하가 설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화자 자신도 설움에 잠기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 1연: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알게 된 삿갓새 울음의 진실
- 2연: 한 마리 삿갓새의 울음이 여러 마리의 삿갓새의 울음으로 들리는 이유
- 3연: 삿갓새의 울음 끝에 열리는 강
- 4연: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섬진강의 힘센 물줄기
- 5연: 울음 끝에 서러운 빛깔로 남아 버린 세석의 철쭉꽃밭

✓ 주제 : 지리산 삿갓새의 울음에서 깨닫게 되는 설움의 정서

- ① 독백조의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석 석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 나는 길 뜬 설움에 맛이 들고’에서 시간의 경과를 통해 정서가 심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울음 울어’와 ‘때로 울음 울어’ 등의 시구에서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삿갓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힘겨운 삶을 살아온 민중이 역사를 생성하는 주체임을 깨닫는 작품이다.
- ⑤ ‘서러운’이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⑥ ‘삿갓새의 울음’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⑦ 소박한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모습을 떠올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는 존재로서의 민중을 예찬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 ⑧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 그래서 여러 마리의 삿갓새로 울음 우는 것’은 설움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민중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⑨ ‘강이 열리는 것’과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은 민중의 설움이 단지 슬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생성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전라도 가시내」 _ 이용악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알록 조개에 입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뻔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발을 열구며* / 무쇠 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 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려다만
 어디서 흠참한 기별이 뛰어든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히 잠겨 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 리 천 리 또 천 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내야 /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아닌 봄을 불러 줄게
 손때 수집은 분홍 댕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감아 치는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열구며: '열리며'의 방언.
 *호개: 호가(胡歌). 북방 오랑개의 노래.
 *불술기: '불수레', 즉 태양. 혹은 '기차'의 함경도 사투리.
 *우줄우줄: 몸이 큰 사람이나 짐승이 가볍게 울동적으로 자꾸 움직이는 모양.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화자인 '함경도 사내'가 '전라도 가시내'를 만나는 상황을 통해, 고국을 떠나 북방에서 유랑하는 이들의 비극적인 삶을 그려 낸 시이다. 화자는 '북간도 술막'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자신과 전라도 가시내가 각기 살던 곳을 떠나 그곳으로 오기까지 겪은 힘든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상황을 보여 주는데, 이 점에서 작품이 서사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사적 성격은 일제강점하에서 고향을 잃고 살아가던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1연: 함경도 사내와 전라도 가시내의 만남
- 2연: 함경도 사내가 북간도에서 처한 불안한 상황
- 3연: 함경도 사내가 전라도 가시내와 이야기를 나눔.
- 4연: 전라도 가시내의 비극적인 삶
- 5연: 전라도 가시내에 대한 함경도 사내의 연민과 위로
- 6연: 암담한 현실에 맞설 함경도 사내의 비장한 모습

✓ 주제 : 일제 강점기 유랑민의 비극적인 삶

- ① 청자인 가시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유랑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사라질 게다'를 반복하여 곧 떠나야만 하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한다.
- ③ 1연의 '발을 열구며'는 발에 느껴지는 혹독한 추위를 감각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함경도 사내인 화자가 살던 곳을 떠나 북간도로 오면서 겪은 시련을 암시한다.
- ④ 2연의 '달게 마시려다만'은 '시름'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삶의 고단함에 대한 대응 방식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의 강인한 내면을 부각한다.
- ⑤ 3연의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가시내의 삶에 대한 아픈 기억과 그녀의 어두운 내면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다.
- ⑥ 5연의 '손때 수집은 분홍 댕기'는 유랑하면서 세파를 겪고 있는 가시내의 복장을 나타낸 것이다.
- ⑦ 6연의 '눈포래 휘감아 치는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게다'는 술막을 나설 보일 화자의 모습으로, '눈포래 휘감아 치는 별판'이 화자가 맞닥뜨릴 시련을 함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련에 결연하게 맞서는 태도를 부각한다.
- ⑧ 화자는 자신 역시 고향을 떠나 타국 땅에서 유랑하는 처지임을 고백하며 청자 '가시내'와의 동질성을 드러낸다. 나아가 그녀가 겪은 아픈 삶의 기억에 동참하고, 고향에서의 밝은 기억을 환기시키며 그녀를 위로한다.
- ⑨ '까무스레한 네 얼굴'은 화자가 유랑하던 도중에 만난 시적 대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⑩ 가시내가 화자처럼 타국 땅인 '북간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가시내의 동질성이 드러난다.
- ⑪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는 가시내가 고향을 떠나는 상황에서 느꼈을 슬픔을 환기한다.
- ⑫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가시내가 자라난 고향인 바닷가의 이미지를 보여 준다.
- ⑬ 전라도 출신인 가시내는 고향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를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

「나무」 _ 신경림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밤이면 매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 내려는 것이겠지
 터진 살갓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배인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 신경림, 「나무」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잎이 모두 진 채 서 있는 겨울나무의 모습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과 그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슬픔을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나무들을 관찰하는 위치에서 그들이 '별빛'을 통해 아픔을 정확하고 위로를 얻고 있다고 여긴다. 또한 나무들이 간직하고 있는 근원적인 슬픔이 '깊은 울음'으로 표출되는 상황을 떠올리고는,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자신과 나무들이 지니는 동질성을 환기한다.

- 1, 2행: 햇빛은 채 서 있는 나무들
- 3~5행: 별빛을 통해 아픔을 정확하는 나무들
- 6~10행: 나무들의 몸에 새겨진 고달픈 삶의 흔적
- 11~13행: 삶의 근원적 슬픔에 대한 인식과 공감

✓ 주제 : 삶의 근원적 슬픔에 대한 인식과 공감

- ① 11~13행에서 도치가 활용되어 '나무들이' 표상하는 이들이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의 존재를 알았으면 하는 화자의 바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나무들'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무들이 표상하는 이들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화자는 겨울 '나무들'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나무들의 모습에서 화자 자신을 포함한 인간 존재의 근원적 슬픔을 떠올리고 그 슬픔에 공감을 표한다.
- ④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햇빛은 나무들은 나무들의 그러한 외양이나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을 고려하면 화자가 겨울에 바라본 시적 대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⑤ 나무들처럼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서 울음은 화자 자신을 포함한 인간 존재의 근원적 슬픔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화자와 나무들의 유사성이 드러난다.
- ⑥ '깊은 울음'을 통해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을 떠올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깊은 울음'은 인간 존재가 지닌 근원적 슬픔을 환기한다.
- ⑦ '터진 살갓에 새겨진 고달픈 삶'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아픔을 보여 준다.
- ⑧ 나무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표상한다. 이들은 '매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통해 자신을 '말끔히 씻어 내'며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

「병원」 _ 윤동주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병원 뒤뜰에서 본 젊은 여자 환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그 여자 환자의 병과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병원에서 ‘가슴을 앓’는 ‘젊은 여자’의 생기 없는 모습을 보게 되고, ‘찾아오는 이’가 없는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또한 자신의 오래된 아픔의 원인을 모르는 ‘늙은 의사’의 몰이해에 대해 ‘지나친 피로’를 느끼지만, ‘성내서는 안 된다’고 분노를 자제한다. 그리고 화자는 자신과 여인이 모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3연의 산문시 형태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현재형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한편, 묘사를 통한 시각적 이미지의 사용이 돋보인다.

- 1연: 병원 뒤뜰에서 일광욕하는 여자 환자를 봄.
- 2연: ‘나’의 오래된 아픔에 대해 생각함.
- 3연: ‘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희망함.

✓ 주제 : 고통스러운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 ① 1연의 ‘하얀 다리’는 가슴을 앓고 있는 젊은 여자의 흰옷 즉, 병원복 아래로 드러난 것으로, 활동이 제한되어 생기를 잃어버린 환자의 이미지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1연의 ‘살구나무 가지’와 관련한 현상을 통해 공간에서 느껴지는 쓸쓸한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금잔화’를 가슴에 ‘꽂’은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젊은 여자’는 ‘가슴을 앓’고 있지만 ‘찾아오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외롭고 고독하며 소외된 인물로 볼 수 있다.
- ⑤ ‘병원’은 아픈 곳을 치료하는 공간이지만 화자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이나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벽」 _ 김기택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옆구리에서 아까부터
 무언가 꿈지락거리고 있었다.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만원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혼자 헛되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며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릴 뿐이었다.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달렸지만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더욱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 김기택, 「벽」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할머니를 에워싸고 있는 승객들로 인해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는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벽’이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할머니를 에워싼 승객들의 행동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현대인의 이기주의적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1~5행: 전동차에서 내리려 애를 쓰는 할머니
- 6~11행: 빈틈없는 승객들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할머니
- 12, 13행: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한 할머니
- 14~17행: 할머니가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벽이 되어 가는 승객들

✓ 주제 :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현대인의 모습 비판

- ① 만원 전동차에 있는 할머니가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할머니를 둘러싼 승객의 벽은 점점 더 높고 튼튼하며 견고해지고 있다. 이러한 대조의 방식을 통해 할머니가 처한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 ② ‘태아의 발가락’의 이미지를 통해 부정적 상황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부질없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빈틈’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대상이 처해 있는 절망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는 ‘높고 튼튼한’, ‘더욱 견고한 벽’이 되어 가는 ‘승객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제시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현대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작은 할머니’는 작은 체구를 가지고 ‘승객들’에 ‘에워싸인 미약한 존재라는 점에서 소외된 인물로 볼 수 있다.
- ⑥ ‘전동차’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지만 인간 소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이나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눈물」 _ 김현승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더러는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生命)이고저……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들이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김현승, 「눈물」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시는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자식을 잃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절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며, 신의 섭리에 따라 자신의 슬픔을 승화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삶을 담담하게 따르고자 하는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1연: 순결한 생명에 대한 염원
- 2연: 순수 결정체로서의 눈물
- 3, 4연: 절대적 가치로서의 눈물
- 5연: 꽃이 시들어 열매를 맺는 신의 섭리
- 6연: 순결한 생명으로서의 부활과 눈물의 의미

✓ 주제 : 슬픔의 승화를 통한 순결한 삶의 추구

- ①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불완전하게 문장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전달하고 있다.
- ② 마지막 행의 ‘눈물’은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슬픔을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화자의 내면적인 성숙을 이끄는 대상이다.
- ③ 아들의 죽음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부모의 관점에서 자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하지만 그런 아들을 잃은 화자는 자연적 순환과 같은 신의 섭리를 이해하는 모습을 통해 절대적 존재인 신에게 의탁하여 그 슬픔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④ ‘나의 전체’와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니인 것’은 ‘눈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 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어 열매를 맺게’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소멸-생성)에서 화자는 슬픔과 기쁨의 순환이 신의 섭리임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⑥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에서 화자는 자신의 눈물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를 기원함으로써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우」 _ 김춘수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넘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흑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시는 아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아내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아내와 함께했던 일상의 모습 속에서 아내가 부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아내를 찾는 화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슬픔의 정서를 절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쏟아지는 비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상황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1~10행: 부재한 아내를 애타게 찾음.
- 11~13행: 아내의 죽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임.
- 14~19행: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체념

✓ 주제 :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

- ① ‘비가 온다’, ‘못 보게 한다’, ‘퍼붓는다’에서와 같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상황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② ‘비’는 아내를 잃은 화자의 내면적 슬픔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③ 아내와의 사별을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 화자는 사별로 인한 아내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일상적 소재를 통해 아내의 존재를 느끼다가 계속되는 부재의 확인으로 아내의 부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④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에서 아내의 부재를 인정하지 못하던 화자는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에서 생각의 전환을 일으켜 아내의 부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다.
- ⑤ ‘넘치지지미 맵싸한 냄새’와 ‘옆구리 담피’는 일상적 소재로, 화자가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 ⑥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는 아내를 잃은 화자의 절망적이고 암담한 경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파밭 가에서」 _ 김수영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김수영, 「파밭 가에서」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시는 붉은 파밭에서 돌아나는 푸른 새싹을 보며 묵은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화자의 깨달음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는 표면적으로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부조리한 현실과의 결별을 통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방식, 비유와 역설의 표현 방식,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1연: 묵은 사랑을 잃을 때 새로운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 2연: 묵은 사랑의 힘을 떨치고자 하는 의지
- 3연: 묵은 사랑에 대한 반성과 극복 의지

✓ 주제 : 묵은 사랑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추구하려는 의지

- ① 명령형 어미를 연마다 반복짓기(ㄱ)으로 사용하여 변화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매 연마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에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푸른 새싹’은 묵은 사랑이 변화하는 시점에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으로, 이를 통해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으므로, 화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자 화자가 지향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④ ‘먼지 앉은 석경’은 오래 방치된 모습을 통해 ‘묵은 사랑’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떠올리게 한다.
- ⑤ ‘대낮’은 ‘새벽’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인식하게 한다.
- ⑥ 화자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사랑의 대상이나 대상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변화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역설적 인식을 통해 과거의 사랑과 결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⑦ ‘묵은 사랑이 / 벗겨질 때’, ‘묵은 사랑이 / 움직일 때’에서 사랑이 벗겨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곧 사랑의 감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화자가 사랑의 감정이 변화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⑧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는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랑과 결별해야 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역설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⑨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태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들국」 _ 김용택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뭐헌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불고
 산 아래 집 뒤편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뭘 헛짓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 뭘 소용이다요
 뭘 소용이다요. 어둔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헌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저 달 금방 저물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텃디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 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헌다요, 뭘 소용이다요.

- 김용택, 「들국」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시의 화자는 서리를 맞으며 가을이 깊어 가도록 들
 판에 피어 있는 들국의 모습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
 오기만을 부질없이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다
 양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대비되는 화자의 쓸쓸하
 고 허망한 심정이 시 전반에 깔려 있다.

- 1~9행: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대조적인 화자의 마음
- 10~15행: 임이 없는 상태의 암담하고 막막한 심정
- 16~19행: 부질없는 기다림의 허망함과 안타까움

✓ 주제 : 임에 대한 그리움과 막막한 기다림

- ① ‘단풍’, ‘억새꽃’, ‘서리’와 같은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
 재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뭐헌다요’, ‘도망가불고’, ‘헛짓이다요’와 같은 전라도
 방언을 사용하여 토속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③ ‘~면 뭐헌다요’와 같은 문장을 반복하여 구조적 안정
 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하얀 들국’은 임과 이별한 상태인 화자의 현재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임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서러운 처지를 함축하고 있는 존재이다.
- ⑤ ‘산그늘’은 ‘도망가불고’라는 표현과 연관지어 볼 때,
 화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화자를 떠난 임을 떠올리게
 한다.
- ⑥ ‘마른 지푸라기’는 임을 그리워하다 바싹 마른 화자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 ⑦ ‘서리 밭’은 이어지는 ‘들국’과 동일한 색채적 이미
 지를 사용하여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
 다.
- ⑧ 화자는 사랑의 구체적 대상을 지목하여 그에 대한 화
 자의 정서와 처지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
 다.
- ⑨ ‘산마다 단풍’, ‘하얀 억새꽃’은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
 으로, 임의 부재 상황에는 화자에게 소용없는 대상이
 다.
- ⑩ ‘당신 안 오는데 뭘 헛짓이다요’, ‘초생달만 그대 얼굴
 같이 걸리면 뭐헌다요’에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당신’과 ‘그대’로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그에 대한 화
 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⑪ ‘세상 길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음
 을 알 수 있다.

「흙」 _ 문정희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 흙 흙 하고 그를 불러 보라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의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을 본 일은 있다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 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흙의 일이므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 흙 흙 하고 그를 불러 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 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 문정희, 「흙」

*귀의처: 돌아가거나 돌아와 몸을 의지하는 곳.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흙이 지니고 있는 모성(母性)을 예찬하고 있다. 1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흙의 이름을 부러워한다고 하면서 '흙 흙 흙 하고 그를 불러 보라'고 말한다. [흙 흙 흙]이라는 발음이 마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는 점에 착안하여 '심장 저 깊은 곳'에서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두 눈이 젖어 온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2연에서 화자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흙이 지닌 속성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흙은 '생명의 태반'인 동시에 '귀의처'이기도 하며, '한 줌의 씨앗'을 '한 가마의 곡식'으로 돌려주는 곳이다. 3연에서 화자는 울음소리처럼 발음되는 흙의 이름을 부러워하며 모성을 떠올리고 있다. 바로 그 모성으로 인해, 흙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성이란 '자신을 퍼 올리는'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슬프'기도하다는 것이다.

- 1연: 울음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흙의 이름
- 2연: 생명의 근원이 되는 흙
- 3연: 흙이 지닌 슬프고도 아름다운 모성

✓ 주제 : 흙이 지닌 모성에 대한 예찬

- ① 자연물인 '흙'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생명의 태반이자 귀의처라는 속성이나 성질을 이끌어 낸 후 모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② '불러 보라'에서 명령형 어미를 통해 '흙'이라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흙은 생명의 태반이자 '귀의처'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측면에서 '흙'이 가진 이중적 성격을 제시한 것이다.
- ④ [흙]으로 발음되는 '흙'이라는 시어의 연속적인 반복을 통해 눈물을 연상시켜 애상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도공이 밤낮으로 /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은 흙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⑥ '두레박으로 / 자신을 퍼 올리는'은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⑦ '철 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흙의 모성성을 나타낸 것이다.

「느티나무로부터」 _ 복효근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면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불거져 나왔다
 군데군데 굳은살에 웅이가 박혔다
 먼 길 걸어왔단 뜻이리라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나 물으며 하늘을 보는데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껍질 그 안 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 가는데
 그 속에 뿌리를 묻고 풀 몇 포기 꽃을 피워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 준다
 돌아보면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그것은 또 그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
 그러니 설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때 아닌 낮 모기 한 마리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피꽃을 피운다
 잡지 않는다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다시 신발끈을 맨다

- 복효근, 「느티나무로부터」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느티나무와의 교감을 시도하고, 자연물에 내재된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을 포괄하는 삶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화자는 느티나무의 모습을 통해 삶의 고통이나 상처가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자를 긍정하는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1연(1~12행): 느티나무로부터 느껴지는 동질감
- 1연(13~22행): 상처가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
- 2연: 타자를 배려하는 삶에 대한 의지

✓ 주제 : 느티나무를 통한 삶의 깨달음

- ① 화자는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면서 신발 끈을 매는 행위를 통해 성찰을 바탕으로 한 다짐을 보이고 있다.
- ②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며 타인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나타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 ③ 자연물인 ‘느티나무’를 관찰하여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에서 힘겨운 삶이라는 속성이나 성질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껍질 안쪽으로 썩어 몸통이 비어 있는 부분을 보며 상처라는 속성을 이끌어 낸 후 다른 생명을 품게 하는 모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④ ‘걸어왔단 뜻이리라’에서 추측의 의미를 지닌 어미를 통해 ‘느티나무’라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가 느티나무를 보며 ‘너와 나와는 / 참 멀리 왔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화자가 느티나무에 동질감을 느끼며 교감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⑥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는 미래에 대해 긍정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시 신발 끈을 맨다’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⑦ ‘설불리 /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것은 삶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⑧ ‘발등에 앉아’ 있는 ‘모기 한 마리’를 잡지 않는 것은 다른 생명체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_ 백석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을 깎,
 한 방에 들어서 천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달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짚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디두 앉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머를 소처럼 연하여 짜김
 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짝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턴정을 쳐
 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
 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짜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천을 붙이었다: 주인집에 세 들었다.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방랑하는 화자가 삶에 대한 반성을 거쳐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시이다. 이 시의 제목은 화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나타낸 것으로, 객지에 홀로 떨어져 지내는 화자의 처지를 보여 준다. 화자는 홀로 방에 틀어박혀 자기 성찰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과정에서 북받치는 회한과 좌절을 경험한다. 이러한 정서의 흐름은 20행의 '그러나'를 기점으로 전환을 보인다.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은 삶을 움직이는 초월적 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한 화자의 감정은 점차 진정되고 외로움의 감정만이 남는다. 이윽고 화자가 떠올리는 '갈매나무'는 시련을 견디며 현실을 살아가는 고결한 삶의 모습을 상징하며, 새로운 삶의 지향을 보여 준다.

- 1~8행: 타향에서 떠돌다가 목수네 집에 세를 든 '나'
- 9~15행: 자신의 지난 시절을 돌아보는 '나'
- 16~19행: 북받치는 회한을 느끼는 '나'
- 20~23행: 삶을 움직이는 초월적 존재를 떠올리는 '나'
- 24~32행: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는 '나'

✓ 주제 :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 ① 20행의 '그러나'를 통해 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까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정화해 나가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쌀랑쌀랑'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갈매나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머를 소처럼 연하여 짜김질하는 것이었다.'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슬픔과 후회의 심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짜락눈', '눈'과 같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슬픔과 어리석음'을 화자가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대상, 즉 감각할 수 있는 사물처럼 드러내어 화자의 깊은 후회를 보여 준다.
- ⑥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에 인격을 부여하여 그것이 의지를 지니고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모습에 대한 상상을 드러내는데, 이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외부의 힘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 ⑦ '한 방'은 '나'가 '거리 끝에 헤매'다가 세를 들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자 가족과의 단절된 생활을 지속하는 공간으로, '나'는 여기에서 자신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시련에 따른 무력감을 느꼈다가 자신의 슬픔과 절망을 정화한다.
- ⑧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머를' 되새기다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 있었다는 것은 삶의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며 화자가 겪는 심리적 변화를 드러낸 것이다.
- ⑨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굳고 정한 갈매나무'는 화자가 추구하는 자아상이 투영된 대상으로 의연하게 시련을 견디는 삶의 태도를 표상한다.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_ 최승호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를
 무슨 무슨 주의(主義)의 옛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
 되었다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 몸통뿐.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神木)의 향기 맡으며 밤을
 보내고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國道邊)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북
 가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내 양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봄기운에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여
 잎사귀 달린 시(詩)를, 과일을 나눠 주는 시를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지귀지 않아도

- 최승호,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이념이 강요되는 현실 속에서 영혼의 순수성을 지켜 내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자신의 영혼을 ‘북가시나무’에 빗대면서, 다양한 상징적 소재와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영혼에 가해지는 이념들의 폭력을 형상화한다. 또한 현실의 횡포에 대해 저항적 태도를 보이면서, 영혼의 순수성을 지켜 내어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쓰겠다는 다짐을 드러낸다.

- 1연: 이념이 강요되는 현실에서 상처 입은 영혼
- 2연: 신목의 향기를 떠올리며 연는
- 3연: 현실의 횡포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
- 4연: 현실에 대한 저항과 순수성이 담긴 시를 쓰겠다는 다짐

✓ 주제 : 현실의 횡포 속에서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

- ① 3연의 2~5행, 4연의 5~8행 등에서 어순의 도치가 드러나며 이를 통해 현실의 횡포와 순수성을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봄기운’과 같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추상적인 대상인 ‘내 영혼’을 상징적 소재인 ‘북가시나무’로 나타내고 그것이 가위질당하는 상황에서 화자의 상처 입은 내면이 드러난다.
- ④ ‘허공’은 ‘나’가 ‘국도변’에서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에 시달리다가 잠들어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일시적인 위로를 얻으며 세속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 ⑤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면서 ‘잎사귀 달린 시를, 과일을 나눠 주는 시를’ 쓸 상황을 상상하는 모습을 통해, 고통을 극복한 결실로서 시를 쓰고 싶다는 삶의 지향이 드러난다.

「경사」 _ 박목월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지순(至純)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쁜 나의 신발(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傾斜感).

겨우 시야(視野)가 열리는 남색(藍色),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水平)의 거리감(距離感).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쁜 나의 신발.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여.

- 박목월, 「경사」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인생의 황혼기를 향해 점차 나이가 들며 느끼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자신이 늙어 가는 일을, 무거운 젊음의 구두를 벗고 가쁜한 신발을 신은 채 신비스러운 경사감을 느끼며 내리막길을 걸어 바다에 이르는 일에 빚대면서, 그것이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 굴이 열리는 것처럼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당연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 1연: 유자나무와 굴나무가 있는, 바다로 기운 길
- 2연: 가쁜한 신발을 신고 걸으며 느끼는 신비스러운 경사감
- 3연: 내리막길의 끝에 있는 심오하고 잔잔한 바다
- 4연: 가쁜한 신발을 신고 걷는, 바다로 기운 당연한 길
- 5연: 황혼 무렵 바다로 기우는 세계에서 느끼는 신비스러운 경사감

✓ 주제 : 나이 드는 일에서 느끼는 가쁨함과 신비로움

- ① 마지막 연에서 '오오'라는 감탄사를 통해 감정의 고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대구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시구의 반복을 통해 발화 의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④ 화자는 '굴나무'에 '굴이 열리는' 것을 언급하며 '지순한 길', 즉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당연한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 ⑤ '굴나무'는 섭리에 따르는 자연스러움을 지닌 곳이자, 섭리에 관한 화자의 인식을 환기하는 대상이다.
- ⑥ '건조한 가을길'이 계절감을 드러내는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⑦ '남색'이라는 색채어를 포함한 시각적 이미지로 '심오한, 잔잔한 세계'인 바다의 평온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⑧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고 걸으며 '신비스러운 경사감'을 느낀다고 한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⑨ '해가 저물고' 있는 시간의 풍경으로 '설레는 구름과 바람'을 언급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젊은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삶의 기쁨을 느끼는 화자의 상황과 조응한다.

「겨울나무를 보며」 _ 박재삼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스물 안팎 때는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어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
 숨 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이제 마흔 가까운
 손등이 앙상한 때는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 그것이 되어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 버렸다.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앉아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을
 부우연 노을 속 한 경치로써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여름 나무와 겨울나무의 모습을 인간의 삶에 대응시켜 노래한 시이다. 온통 산발을 한 듯 어지럽게 흔들리며 자라난 나무의 모습에서 스물 안팎의 젊은 시절 숨 가쁘게 살았던 자신을 떠올린 화자는,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 버린 앙상한 겨울나무의 모습에서 마흔 가까운 중년의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탕에 들어앉아, 벗을 것을 벗어 버린 겨울나무와 같이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조금씩 확인해 나간다.

- 1연: 숨 가쁜 여름 나무처럼 걱정적이었던 젊은 날의 방향과 열정
- 2연: 겨울나무처럼 벗을 것을 벗어 버린 마흔 가까운 때의 모습
- 3연: 삶의 참모습을 확인하는 기쁨

✓ 주제 : 겨울나무를 보며 깨닫는 삶의 기쁨

- ① 화자는 ‘온통 산발을’ 한 듯하던 나무들이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벌거벗은 ‘겨울나무’가 된 것을 바라보고 있다. 즉 ‘겨울나무’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환기하는 대상이다.
- ② 화자는 젊은 날 느끼던 감정과 대비되는, 시간이 흘러 중년이 되어 느끼게 된 감정을 제시하고 있고, ‘스물 안팎 때’와 ‘마흔 가까운 / 손등이 앙상한 때’는 그 각각을 가리키는 시구이다.
- ③ ‘벗어 버렸다’와 ‘탕에 들어앉아’를 보면 서로 관련 있는 상태와 행위를 가리키는 시구들을 활용함으로써 2연과 3연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 ④ ‘비로소’라는 시어로 시작함으로써 3연이 깨달음을 드러내는 부분임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 ⑤ ‘따름이다’에서 현재 시제의 진술을 사용함으로써 3연이 화자의 현재 상황과 관련된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⑥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 어지럽게 흔들어’라는 표현은 역동성을 환기하는 시구를 통해 혼돈과 방향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⑦ ‘그것들이 나를 향해 / 손을 흔들며 /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에서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대상에게 투사하고 있다.
- ⑧ ‘부우연 노을 속 한 경치’를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라고 한 것은 노화의 과정에서, 아직 확실하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겨울나무들이 화자에게 손을 흔들면서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감나무 그늘 아래」 _ 고재중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라.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라.
 아까는 오색딱다구리가
 따다다닥 짝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구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보게.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랴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치지 않으랴.

-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감나무와 화자를 동일시하며, 유추적 발상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감나무의 익어 가는 땡감은 임에 대한 그리움이 심화되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낸 것이고, 기다림 끝에 맺은 형형 등불(홍시)은 이별의 고통을 감내한 화자가 얻게 된 내적 성숙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화자는 땡감이 익어 가는 감나무를 보며 이별의 고통을 견디고 기다리면 마침내 더 성숙해질 것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1~8행: 흔들리는 감나무를 바라보는 화자
- 9~12행: 커 가는 땡감처럼 커지는 그리움
- 13~21행: 이별 후 임을 기다리는 자세
- 22~27행: 홍시가 된 감을 통해 깨달은 내적 성숙

✓ 주제 : 익어 가는 감을 통해 깨달은 내적 성숙의 과정

- ① 인간사의 본질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 ② ‘기다림’, ‘서러움’을 구체적 사물처럼 표현하였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 ④ 감나무의 땡감이 무르익어 홍시가 되는 변화에 주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설의법을 사용하여 사랑이 끝나도 그리움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⑥ 대도적 의미를 지닌 ‘흰구름’과 ‘장대비’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다양한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 ⑦ ‘감나무 그늘’은 감나무의 땡감이 홍시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내적 성숙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 ⑧ 구체적인 자연 현상에 빗대어 이별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 결국 내적 성숙과 내면의 풍요로움을 이루는 인간사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⑨ ‘그 그리움 날로 자라’서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땡감이 커 가는 모습에 빗대어 이별 후 그리움이 심화되는 인간사의 한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 ⑩ ‘서러움까지 익어선 /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는 것은 ‘땡감’이 결국 홍시가 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때 홍시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땡감’이 ‘홍시’가 되려면 ‘서러움’까지 익어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이별의 아픔마저 충분히 감내해야 내면의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수목 정원 9-번집」 _ 장석남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네게로 번진다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
 또 한번 - 저녁은 번져 밤이 된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의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 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 장석남, 「수목 정원 9-번집」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먹의 번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수목화 기법을 활용해 바람직한 인간관계나 조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수목화는 형태와 색채, 농담과 여백이 뚜렷하지 않은 방식을 활용하는데, 화자는 세상의 모든 관계가 이러한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즉 계절의 변화, ‘너’와 ‘나’의 관계 형성, 성장과 결실, 삶과 죽음, 인간과 자연이 모두 번짐을 통해 서서히 스며들며 관계 맺고 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 1~6행: 번짐으로 이루어지는 계절의 변화와 ‘너’와 ‘나’의 관계
- 7~10행: 번짐으로 이루어지는 성장과 결실
- 11~16행: 번짐으로 이루어지는 음악과 미술, 삶과 죽음의 관계
- 17~20행: 번짐으로 이루어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 주제 : 번짐으로 이루는 조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

- ① 인간사의 본질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여름’, ‘가을’, ‘삶’, ‘죽음’을 구체적 사물처럼 표현하였다.
- ③ 어떤 대상이 ‘번짐’의 과정을 거쳐 다른 대상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주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삶’은 ‘죽음’이 되고, ‘죽음’은 다시 ‘삶’을 밝힌다고 했으므로 이 둘은 순환 관계에 해당한다.
- ⑤ ‘번짐, / 번져야 살지’처럼 첩표와 행을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번짐’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⑥ 먹의 번짐 효과나 피사체들을 뚜렷하게 구별하지 않는 수목화 기법에 빚대어 계절의 변화, 인간 간의 관계 맺음, 인간과 자연의 조화 등 여러 존재가 서로에게 스며들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⑦ ‘너는 내게로 /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 나는 다시 네게로 번진다’는 것은 먹이 종이에 번지는 수목화 기법을 활용해 인간의 관계 맺음이 서로에게 서서히 스며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낸 것이다.
- ⑧ ‘산기슭의 오두막 한 채 번져서 / 봄 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라고 한 것은 피사체들을 뚜렷이 구별하지 않는 수목화 기법에 빚대어 자연과 인간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_ 이문재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물녘 광화문 네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달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光化門)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 이문재,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문명에 위협당하고 있는 도시 생태계의 문제를 비판적 시선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채 해가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 거리, 꼬마전구로 장식된 나무들을 보면서 화자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화려해 보이는 불꽃과 나무 장식과 같은 문명의 이면에는 인간 중심의 왜곡된 가치관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명이 만들어 내는 화려한 풍경 앞에서 자연의 가치와 생명력이 상실되어 가는 상황의 부조리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 1연: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 광화문 네거리
- 2연: 밤에도 환하게 불 밝히고 잠들지 못하게 하는 도시 권력들
- 3연: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광화문과 겨울나무

✓ 주제 :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과 성찰

- ①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제시여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영단적 표현을 통해 인위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화자 또한 현혹당할 뻔한 상황을 보여준다.
- ③ 열거의 방식을 통해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상황에 놓인 대상들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사물을 인격화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동상’이나 ‘세종문화회관’도 잠들지 못할 정도로 밤에도 불을 밝히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광화문’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함으로써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는 상황을 보다 현실감 있게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⑥ 화자는 사람들로 인해 ‘엽록소를 버’리고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는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 ⑦ ‘겨울나무들’은 화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풍경이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연물이다.
- ⑧ ‘겨울나무들’을 본 화자는 자연이 지닌 본래의 가치를 외면하고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문명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 ⑨ ‘병균’이 의미하는 바를 통해 안식을 누려야 하는 ‘밤’이라는 시간도 물리쳐야 하는 것으로 취급받는 세태를 보여 주고 있다.
- ⑩ 인식의 대상을 ‘겨울나무’에서 ‘사람들’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문제 상황이 인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⑪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타난다.
- ⑫ ‘겨울’은 나무들이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시기로, ‘어둠’과 같이 안식과 휴식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상황은 ‘가로수들이 / 일제히 불을’ 켜게 되는 것과 같이 자연의 본성을 거스른 채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_ 나희덕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인해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화자가 대상을 진실하게 이해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복숭아나무에 대해 거리감을 갖고 있던 화자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곧 이해에 이르게 된다. 작품은 이와 같은 과정을 형상화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소통, 공감의 의미를 그리고 있다.

- 1연(1~6행): 대상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함.
- 1연(7~12행):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다다름.
- 2연: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와 복숭아나무와의 소통

✓ 주제 :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와 공감

- ①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에서, 비유(의인)를 통해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멀리로 멀리로만’, ‘눈부셔 눈부셔’ 등과 같이 특정 어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1행은 ‘복숭아나무’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화자가 ‘복숭아나무’ 곁으로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에는 다음에 나타나는 ‘그래서’로 미루어 보아 ‘복숭아나무’의 외로움이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탓이라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은 ‘복숭아나무’의 꽃잎들이 먼 곳에 닿았을 만큼의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⑥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졌던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이 이해와 교감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 ⑦ 복숭아나무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⑧ ‘멀리로만 지나’치다 ‘수천의 빛깔이 있’음을 ‘멀리서 알았’다는 것은 대상과 화자의 미적 거리가 보다 가까워진 상태임을 보여준다.
- ⑨ 복숭아나무가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음을 보는 것은 곁으로 드러난 모습에 대한 인지라는 점에서 화자의 인식이 감각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재미」 _ 문태준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 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돌아 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나던 대낮의 빠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흠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치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쏘려 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 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 준다

- 문태준, 「가재미」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가재미’라는 독특한 비유를 활용하여 죽음을 앞둔 ‘그녀’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교감을 다루고 있는 시이다. ‘가재미’는 가자미의 경상도 방언 표현으로, 작품에서는 죽음을 앞둔 채 힘없이 누워 있는 그녀를 ‘엎드린 가재미’로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과 교감을 드러내고 있는 자신 또한 ‘한 마리 가재미’로 나타냄으로써 다른 존재에게 건넬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1, 2행: 암 투병으로 누워 있는 그녀
- 3~5행: 가자미처럼 누운 채 눈길을 주고받으며 우는 그녀
- 6~11행: 지금은 죽음만을 바라보는 그녀의 과거에 대한 환기
- 12~16행: 죽음이 임박한 그녀와의 교감

✓ 주제 : 그녀에 대한 연민의 정과 깊은 교감

- ①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와 같이 청각과 촉각을 관련짓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감각의 정도를 심화하고 있다.
- ②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과 같이 비유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 있다’,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에서 ‘그녀가 누워 있다’, ‘없다는 것을 안다’, ‘버렸다는 것을 안다’에서 ‘것을 안다’와 같이 특정 어구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나던 대낮의 빠꾸기 소리며 /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에서 열거의 방식이 쓰이고 있다.
- ⑤ ‘눕는다’, ‘쏟아낸다’, ‘떠올린다’ 등과 같이 현재형 어미가 나타나고 있다.
- ⑥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는 ‘그녀’가 다른 것을 보지 못한 채 오로지 ‘죽음만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가 처해 있는 부정적이고 암울한 현재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⑦ ‘흠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는 ‘흠담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가난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가난이 ‘누대의 가게’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대를 이어서 계속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⑧ 대상에 대한 공감과 위로, 이해와 연민에 기반한 관계 설정이 드러나는데, 특히 대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행위 하는 것으로 나아감으로써 화자와 대상 사이에 교감이 일어나고 미적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 ⑨ ‘가재미처럼’ 누워 있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 것은 대상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공감과 위로에 기반한 관계 설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⑩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 화자를 위해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 주는 것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교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⑪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 내는 것은 정서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화자와 대상 사이의 미적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수」 _ 오장환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여수*에 잠겼을 때, 나에게는 조그만 희망도 숨어버린다.
 요령*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어!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섰다.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 꿈처럼
 누덕누덕이 기워진 때 묻은 추억,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시정배와 같이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

괴로운 행려 속 외로이 쉬일 때이면
 달팽이 깍질 틈에서 문밖을 내다보는 알미운 노스타르자*
 너무나, 너무나, 빼 없는 마음으로
 오-늑는 무슨 두 뿔따구를 휘저어보는 것이냐!
 - 오장환, 「여수」

*여수: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함이나 시름.
 *요령: 늦쇠로 만든 종 모양의 큰 방울.
 *노스타르자: 노스텔지어.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시는 방랑의 모티프를 바탕으로 현실의 답답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현실에서 느끼는 답답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암담하고 고달픈 현실과, 그런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자신에 대한 자책과 회한이 마음의 안식으로서의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참신한 비유와 상징, 애상적인 어조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 1연: 여수에 잠겨 현실에 절망하며 추억을 떠올림.
- 2연: 현실을 모른 채 살아온 삶에 대한 자책과 회한
- 3연: 괴로운 행려 속 고향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

✓ 주제 : 객지에서 느끼는 시름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 ①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직유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요령’은 방랑의 생활을 하고 있는 화자의 부정적 처지에서 느끼는 화자의 불안정한 내면 심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 ⑤ 방랑을 하고 있는 화자의 고된 처지를, 마찬가지로 방랑을 하는 존재인 ‘늙은 장돌뱅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⑥ 화자가 느끼는 향수를 달팽이의 형상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⑦ ‘여수’는 방랑의 체험을 얻은 정서로, 화자에게 희망마저 숨어 버리게 하므로 화자를 좌절하게 하며, 화자를 성찰하게 한다.
- ⑧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은 화자를 ‘추억이 무성한 숲속’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화자는 자신이 살아온 현실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⑨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은 설의적인 것으로, 뒤이어 나오는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로 인해 현실에 대한 왜곡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방울소리」 _ 이수익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 목에 걸렸던 방울을 / 하나 샀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 질 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자 바닥에 다가운데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 들릴까 말까,
 사립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 이수익, 「방울소리」

✓ 주제 방향성 :

☞ EBS의 시선

이 시는 골동품 가게에서 구입한 소 방울을 통해 유년 시절 고향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방울 소리를 들으며 꼴을 먹인 소를 몰고 산을 내려왔던 유년 시절의 여름날 저녁을 떠올린다. 바쁘고 시끄러운 소음으로 상징되는 현재의 일상과 달리 소 방울 소리가 들리는 고즈넉한 고향의 모습은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 있다.

- 1연: 골동품 가게에서 방울을 삼.
- 2연: 소를 몰고 산을 내려왔던 유년 시절을 회상함.
- 3연: 시끄러운 일상에서 따스했던 고향을 그리워함.

✓ 주제 : 유년 시절 고향에 대한 그리움

- ① 동일한 시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과거의 고향 마을과 현재의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이 과거 회상을 매개로 대조되어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통해 과거의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방울’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어린 시절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 ⑤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⑥ ‘소를 몰고 여름 해 질 녘 하산하던 / 그날의 소년’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화자의 그리움이 과거에 경험했던 시·공간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⑦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 들릴까 말까’에서 자신이 바라는 바의 실현에 대해 의문형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글쓰기가 각각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